일 주 문



국제선문화체험관 낙성

수암 서울 화계사 주지 스님은 3월 17일 낮 12시 외국인스님들을 위한 시설인 국제선문화체험관 낙성식을 봉행한다.



전국비구니회 정기총회

육문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스님은 3월 27일 오후 1시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서 전국비구니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답게운동본부' 대표회장에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3월 7일 '답게살겠습니다 운동본부' 대의원총회서 제2대 대표회장으로 추대됐다.



불교진흥원 열린강좌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3월 20일 오후 7시 서울 마포 다보빌딩 3층 다보원서 '불교정신치료' 주제로 열린 강좌를 개최한다.

한국불교연구원장에 안성두 교수



(사)한국불교연구원 신임 원장에 안성두 서울대 철학과 교수〈사진〉가 선임됐다. 한국불교연구원은 "제7대 원장에 안성두 교수를 선출했으며, 3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고 3월 6일 밝혔다.

안성두 신임 한국불교연구원장은 동국대 대학원 인도철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독일 함부르크대 대학원 인도학과서 석, 박사 과정을 마쳤다. 금강대 불교학부 교수를 거쳐 현재는 서울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경주캠 정각원장에 법수 스님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장에 법수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동국대 이사장 지광 스님은 3월 7일 동국대 본관 4층 이사장실에서 동국대 경주캠퍼스 신임 정각원장 법수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사장 자광 스님은 "법수 스님은 지난 2년간 경주캠퍼스 정각원장을 맡으면서 불교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해주셨다"며 "앞으로도 구성원들의 신심을 잘 길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수 스님은 "정각원의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을 통해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불교종립대학으로서 건학이념을 실천하는 도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터널 지난 남북교류 불교계가 뒷받침을"

Interview

신임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원택 스님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정부차원 접근 중요하지만
이후 민간교류가 핵심과제
자유왕래 될 때까지 최선

"본부장 소임을 맡자마자 마침 대북특사단이 좋은 결과물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결과를 보면 남북교류가 이제는 어두운 터널을 빠져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남북 평화를 위해서라도 불교계가 활발한 교류를 펼쳐 뒷받침할 때입니다."

한동안 공석이었던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에 원택 스님(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이 3월 6일 임명됐다. 원택 스님은 본지 인터뷰서 몇 년간 단절된 남북교류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에 불교계가 이바지할 것을 강조했다.

원택 스님은 "남북관계 개선은 정상회담을 비롯한 정부차원 접근이 가장 중요하지만 물꼬를 튼 이후부터는 민간교류가 더욱 중요해진다. 그 중에서도 종교는 인도적, 문화적 차원의 교류라는 점에서 최우선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불교계 교류가 깊어져야 남북이 더욱 평화로울 수 있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불교문화의 공통점을 갖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민추본이 추진하는 부처님오신날 남북대표단 교차방문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 등을 통해 남북 자유왕래가 가능해지길 기원했다.

원택 스님은 "지금 세대는 전쟁의 아픔을 잊은, 그리고 잊어야 하는 손자세대다. 이들이 아픔을 느끼지 않게 하려면 당시의 아픔을 기억하는 어른세대가 나서 평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면서 "개개인이 단순히 좋지 않은 감정만으로 북한을 대하면 국가가 추구하는 평화와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곳곳에서 이끌어가는 대북사업에 힘을 보태고 관심을 가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님은 또한 민추본의 각종 대북사업과 인도적 지원 등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그간 복잡한 정세에도 열심히 달려왔다. 이제는 사업을 살찌우고, 발전시켜 종도들이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열린 마당을 만들어야 한다"며 "편협된 사고에 갇히지 않고 남북이 통합으로 용인하는 불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보며 감명 받았다는 원택 스님은 "선수들이 헤어질 때 흘린 눈물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었다. 바로 우리 민족의 모습이었다"며 "그동안 3.8선 너머로 손가락질하며 켜켜이 쌓인 감정에 서로 형제, 자매였다는 것을 잊었다. 우리나라는 물론 북한 역시 마음을 열고 자유왕래가 가능해질 때까지 큰마음을 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원택 스님은 성철 스님을 은사로 1972년 수계(사미계)했다. 조계종 총무부장, 제10·13대 중앙종회의원, 겁외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성철 스님 선양사업을 펼치는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인재불사 보살행은 삶의 목표"

재단법인 원광장학회
이사장 지광 스님



"출가한 이유가 보살행을 실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으로도 장학금은 지속적으로 전달할 것입니다. 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 늘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재단법인 원광장학회(이사장 지광·사진)가 3월 5일 부산 태고종 원광사 법당에서 제10회 원광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사장 지광 스님은 보살행을 강조하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원광장학회는 2008년 시작해 지역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해왔다. 지속적인 인재불사를 위해 원광사는 나눔기관으로 2015년 재단법인 원광장학회를 설립했다.

이사장 지광 스님은 "불교는 보살피는 종교이며 대자대비를 실천하는 종교다.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준 신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원광장학회는 이날 대학생 5명에게 각 200만원, 중고등학생 13명에게 각 50만원 등 총 1650만원을 전달했다. 장학금은 매년 신도들이 봉축과 천도재 등 여러 행사에 동참해 십시일반 올린 보시금과 스님의 원력으로 모은 것이다. 2008년부터 원광장학회가 전달한 장학금은 총 2억4000만원에 이른다. 신도들은 지난 2014년 스님의 자비나눔 원력에 동참하며 법당 마당에 '혜명자비약속탑'을 세우고 함께 동참할 것을 서원한 바 있다.

지광 스님은 "매년 신도들이 올린 정성을 이렇게 회향할 수 있어 기쁘다. 불자들이 보시를 올리고, 그 보시를 모아 인재불사로 아름답게 회향되도록 돕고 있다. 선업의 씨앗을 심도록 노력한 것"이라며 "자신들의 보시가 인재불사에 사용되는 것을 지켜보고, 기도에 동참해 신도들도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광 스님은 장학 대상인 학생들에게도 '자비와 평등'을 강조하며 바르게 성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광 스님은 "모든 생명체는 평등하고 차별이 없다. 가정은 가정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서로 존중하는 것이 평화의 시작이다. 부모는 부모로 자식은 자식으로 서로 존중하고 평화를 만들어내자"고 격려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구룡사, 서초구에 백미 5000kg

동안거 해제 맞아 자비나눔



통도사 서울포교당 구룡사(회주 정우)는 3월 2일 동안거 해제를 기념해 신도들이 십시일반 모연한 자비의 쌀 5,000kg을 서초구에 기탁했다.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은 "많은 양의 자비나눔은 아니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생활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대구 대성사, 금불대 수료식

1학년 32명 수료, 2학년 28명 졸업



천태종 대구 대성사(주지 영제)는 3월 3일 금강불교대학 2017학년도 수료식 및 2018년도 입학식을 경내 서원당 3층에서 개최했다. 졸업식에선 1학년 수료자 32명, 2학년 졸업자 28명이 배출됐으며, 신입생은 60명이 입학했다. 학업우수자 등에게는 천태종 총무원장 신행상과 주지 신행상이 수여됐다. 금강불교대학장 영제 스님은 "부처님에게 귀의하는 뜻 깊은 날, 기회의 끈을 놓치지 말고 부처님 품에서 열심히 수행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한국불교법사대학 제27기 입학

청규 서약과 발원 부처님전에 다짐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학장 지일)에서는 지난 3월 4일 오후 2시 동국대학교에서 제27기 신입생 입학 환영법회를 개최하였다. 본 입학법회에는 2018학년도 신입생 100여명 중 서울지역 거주자 70여명이 동참하였으며, 법사학인으로서의 청규 서약과 발원을 부처님전에 다짐하였다.

윤호섭 기자

본 광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성수스님, 진정한 참회가 무엇인가!

성수스님은 진실을 가장한 위선을 벗고 불심으로 참회하라! (2018월 3월 2일자 뉴스렙(NEWSREP)에 부쳐)

우리 이사장님과 몇몇 스님들을 조그만 단칸방에 몰아넣고 그 주위 못 박고 감시용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화장실도 못쓰게 하며 주식도 공급배제 시키고 갖은 나쁜 행동을 한 것과 신도들을 조별로 그룹을 지어 지금까지 한 달여 간 주야를 가리지 않고 기도 정진하고 있는 스님들에게 갖은 욕설과 인신공격을 통해 인권유린을 한 그 죄는 하늘이 알고 부처님과 팔부성중이 아신다.

현재 상주이신 이사장님 모친 위패를 모실 때도 온갖 폭력을 가하며 영전에 마지 한 불기도 못 올리게 하는 것이 진정한 스님의 짓인가?

성진 이사장님은 살아생전에 내원암에 오셔서(2015.12월 말경) 당시 주지스님께 "스승이신 보혜스님께서 상좌에게 물려주는 사자상승을 하지 않고 정법구현을 원하셨던 뜻을 받들어 혜원스님(이금분)께 이사장직을 계승하게 하겠다."고 우리 신도들 앞에서 뜻을 공포하셨다.(2016.02.16. 이사 취임) 뿐만 아니라 수도원 신도들에게도 돌아가신 전에(2016.05.09) 늘 "나와 40년 인연인 혜원스님을 나와 똑같이 예우하고 공경하여 따르라." 하셨다고 합니다.

어찌 스승이신 보혜스님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 공경하고 받들지는 못할망정 갖은 행패를 일삼고 제사도 지내지 못하게 하며 돌아가신 스승과 사형을 욕되게 한단 말인가? 이러고도 참회문(2018. 03. 07. 불교신문)을 지상에 공고하는 것은 스스로 죄를 참회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기회를 보아 이사장님을 저해하고 획책하는 간교한 처사임을 우리 신도들은 안다.

진심으로 참회한다면 성진스님 말씀대로 이사장님을 예우하고 멍석 깔고 석고대죄하고 참회하라. 또한 하루빨리 강제로 스님을 골방으로 몰아넣고 못질하여 사용 못하게 한 이사장실을 개방하고 강탈해간 사무실집기와 직인도용 및 대표자 변경 등을 원상복귀 하라.

진정으로 참회하는 것은 성수스님이 수도원을 떠나는 것이다. 이것이 진실임을 부처님과 제불보살님께 천명하며 우리 신도들은 정법구현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공시한다.

불기 2562년(2018) 3월 8일

내원암 신도 : 최명희. 전지호. 김이숙. 최성문. 하철근. 최형호. 박정순. 하상영. 한지원. 김명자 外 / 수도원 사랑회 모임 일동.